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 성과와 과제

학술정보개발과 최미순, 오세나

1. 개요

중앙도서관은 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핵심 학술정보와 학내 구성원들의 학술정보 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근래에는 특히 학내 구성원들의 온라인 기반 콘텐츠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자자료에 대한 수요 및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중앙도서관에서는 전체 장서확충 예산의 70~80%를 전자자료 구독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자자료의 구독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전자자료 구독료 인상률 및 환율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신규 자료의 구독은 물론 기존 자료의 구독 갱신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엘스비어(Elsevier)의 ScienceDirect 전자자료 품목의 누적 적자 문제는 근 10년 동안 우리 도서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계속 남아 있었고, 이는 핵심 학술지 및 전자자료의 구독 유지와 신규 전자자료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학내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문 분야별 핵심 학술지 및 전자자료 구독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누적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20년에 대학이 20억에 가까운 예산¹⁾을 지원해 주었고, 도서관은 누적 적자 해결과 함께 고액의 ScienceDirect를 중단 없이 계속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7.32% 인상률이 반영된 국고출연금 예산을 받게 됨에 따라 최소한 전년도 구독 자료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그간 중앙도서관에서 기울인 노력의 과정을 주요 추진 성과별로 기술하며 앞으로 전자자료의 양적, 질적 구독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주요 추진 성과

가. 누적 적자 해소

2019년 중앙도서관장은 지난 10년간의 전자자료 누적 적자 19.13억을 2020년 예산으로 일괄 해결할 수 있도록 총장께 현안 보고를 하였고²⁾ 이후 확대간부회의 및 학사위원회 등 주요 보직자 회의에 장서확충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다. 도서관이 누적 적자로 인해 신규 전자책, 단행본 구입 요청에 대응하는 수사가 부실해지고 있고, 전자저널 추가 구독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 차례 토로하며 지원을 요청하였다. 점차 보직자들이 우리 도서관의 상황과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면서 누적 적자 해결을 위해 대학 차원의 지원 방

1) 예산항목 및 금액: 법인회계 1,472백만 원, 산학협력단(간접비)회계 510백만 원

2) 월요 간담회 (2019. 11. 4.)

안을 검토하였다. 도서관 또한 2020년(2021년 구독 전자자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자자료를 구독하며, 이후 적자 발생 시에는 담당자 문책도 감수할 것을 전제로 2020년도 장서확충 예산 추가 요청을 하게 되었다.

[표 1] 전자자료 누적 적자 현황³⁾

(단위: 백만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자자료 구독예산(A)	6,213	6,550	7,606	7,719	8,102	7,860	8,688
실지급액(B)	6,356	7,241	7,575	7,792	7,620	8,180	8,893
당해연도 흑/적자(B-A)	△ 143	△691	31	△73	482	△320	△205
누적적자	△1,342	△2,033	△2,002	△2,075	△1,593	△1,913	△2,119
구독종수(유료)	135	149	145	147	142	140	143

전자자료 누적 적자는 일시에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20억 정도의 큰 예산이 필요했기에 대학에서는 2년에 걸쳐 해결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2019년에 914백만 원, 2020년에 1,472백만 원을 지원하여 마침내 도서관의 누적 적자 현안이 해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 간접비 예산 510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구독료가 매우 고액인 ScienceDirect의 안정적인 구독이 가능하게 되었고 학내 연구자들이 불편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도서관도 누적 적자 해결을 위해 계속 자구 노력을 해왔다. 도서관 운영비를 긴축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 누적 적자 해결을 지원하였으며, 학술지 구독 조정, 구독 전자자료 평가 등의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분관에서 중앙도서관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여 이미 배정된 분관의 단행본 예산을 감배정하여 누적 적자를 지원하였고, 2021년부터 단행본 구매 예산을 현재보다 30% 줄여 전자자료 구독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동의하였다.⁴⁾

3) 「월요 간담회 회의자료」 (2019. 11. 4.)

4) 2020년 상반기 분관장회의 (2020. 5. 29.)

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

1. **(자체 예산 추가 확보)** '20년도 도서관 자체 예산안 세출조정으로 187,552천 원 추가 확보
 - 분관별 단행본 예산 감배정(157,552천 원) + 도서관 운영비 예산 절약(30,000천 원)
 - ※ '21년 분관별 단행본 예산 추가 감배정하여 197,100천 원 확보(분관장 협의 완료)
2. **(단행본 예산 전용)** 학술지 구독 비용 누적 적자 지원
 - 인쇄자료 예산 일부 전환 사용
 - 2억 원('15년) > 3억 원('16년) > 3억 원('17년) > 1.37억 원('18년) > 3천만 원('19년)
 - ※ 단행본 구입 축소로 인한 연구 활동 차질 및 대학 연구경쟁력 약화 우려
3. **(학술지 구독 조정)** 분관 및 학과, 연구소 중복 구독 학술지 중단, 대체
 - 학내 중복 구독 학술지 및 이용률 저조 자료에 대한 구독 중단 노력
4. **(구독 전자자료 평가)** 매년 구독 전자자료에 대한 이용 평가 실시
 - 전자자료 이용통계와 CPU 분석,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자자료 이용 평가 실시
 - CPU 평가 85% + 설문조사 평가 15% 반영하여 객관적인 구독 중단 대상 자료 선정
 - ※ CPU(Cost Per Use) : 1회 전자자료 이용 비용
5. **(강의 교재 위주의 전자책 구입)** 학내 연구자들의 이용도가 높은 강의교재 구입
6. **(발전기금 등 타 예산 전용)** 학술지 구독 비용 누적 적자 지원

나. 국고출연금 증액

중앙도서관의 지속적인 장서확충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학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학 연구자들이 전자자료에 대한 높은 연구 의존도에 대한 공감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학술정보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또한 전자자료의 구독료 인상과 환율 상승에 따른 예산 감가 요인 발생 등으로 인하여 매년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독 자료를 일부 중단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적 적자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자자료 구독 환경을 이해하였다. 이에 대학은 장서확충 예산으로 국고출연금 7.32%를 인상하기로 하여 2021년에는 국고출연금 87억에서 6억3천7백만 원이 증액된 93억3천7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도서관의 안정적인 장서확충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표 2] 법인화 이후 장서확충 예산(국고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5,762	7,000	8,000	8,500	8,500	8,500	8,600	8,700	8,700	9,337
인상률	-	21.49%	14.29%	6.25%	0.0%	0.0%	1.18%	1.16%	0.0%	7.32%

다.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노력

전자자료 구독 문제는 중앙도서관만의 사안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전 구성원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매년 150종 가량의 패키지형 전자자료를 구독하고 있다. 전자자료 구독료는 대학의 규모나 이용량에 따라 상이한데 우리 대학은 규모와 이용량 모두에서 최고 등급으로 구독료 또한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자자료 구독료의 지속적인 인상에 반해 예산 증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누적된 적자는 2020년까지 약 21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3~4년 후에는 누적 적자가 전자자료 구독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 확대간부회의 보고

중앙도서관은 2020년 본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전자자료 구독 현안을 보고하였다⁵⁾. 누적 적자 21억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안이 보고되었다.

- (1안) 「간접비 관리 지침」 규정에 따라 간접비 10% 이내에서 당해 연도 적자분 추가 지원
- (2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적자분 각 대학(원)에서 징수
- (3안) 배정된 예산에 맞춰 전자자료 구독

보고 결과, 누적 적자 21억에 대한 본부의 추가 지원과 함께 2021년 전자자료는 2020년 중앙도서관 장서확충비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구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외에도 2021년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 계획안이 두 차례에 걸쳐 보고되었다⁶⁾. 첫 번째 보고의 결정 사항을 반영한 2021년 전자자료 구독안과 더불어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cienceDirect의 구독 방식 전환안(종량제, ReBase 모델)이 주요 보고 사항이었다. 종량제 구독은 1년 동안 이용할 논문 건수를 미리 계약하고 다운로드가 발생할 때마다 논문 당 책정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기존 컬렉션 구독 방식과 달리 개별 구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종량제 대상 저널은 제한 없는 논문 이용이 불가능하다. 당시 예상 계약 금액 내에서 배정된 서울대 연구자 신분별 이용 건수 및 이용 방법(Proxy 접속) 등이 함께 보고되었다. ReBase 모델은 패키지 제공 저널을 약 15% 가량 줄이는 대신 구독료를 할인 받는 모델이다(보고 당시 컨소시엄 협상 중). 종량제 구독에 비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다년 계약의 마지막 해인 2023년의 구독료가 2020년 구독료와 비슷한 수준이 될 예정이라는 점이 보고되었다. 최종적으로는 5.1억의 추가 예산 지원과 함께 ReBase 모델 구독이 결정되었다.

5)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누적 적자에 따른 적자 해소방안(안)」 (2020. 5. 26.)

6) 「2021년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 계획(안) - ScienceDirect 종량제 구독 전환」 (2020. 10. 6.), 「2021년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 계획(안) - ScienceDirect 종량제 구독 전환」 (2020. 10. 20.) (* ReBase 모델 추가 보고)

앞선 세 차례 확대간부회의의 보고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구독 전자자료를 선정하였다. 2021년 전자자료 구독을 위해 추진한 평가 및 선정 결과(114종 구독, 28종 중단), 중단 대상 28종에 대한 학내 의견 수렴 결과를 확대간부회의에 최종 보고하였다⁷⁾. 이후 본래 계획된 구독 전자자료 지출을 모두 완료한 시기의 원 달러 환율 상황에 따라 예산에 일부 여유가 생겨 의견이 제출된 15종을 추가로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20억 정도의 큰 규모인 누적 적자는 단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문제는 아니었다. 2019년 총장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본부 보직자와 실무자, 그리고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현안을 안내하고 설득한 결과 2019년에는 9.1억을, 2020년에는 14.7억의 본부 예산 지원과 더불어 산학협력단 간접비 5.1억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처럼 누적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나아가 차년도 법인회계 장서확충 예산 증액을 이끌어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하겠다.

2) 학내 연구자 대상 이메일 발송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보직자를 포함한 교수진들에게는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과 중단에 대한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하고 설득할 수 있었으나 그 외 학내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21년 1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구독 중단 전자자료 28종 목록을 공지했을 때 적지 않은 수의 연구자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해당 결정사항에 대해 항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는 기존과 같이 전년도 전자자료를 전체 갱신하는 방식으로 구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당면한 전자자료 구독 문제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학내 전체 연구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16일 중앙도서관장 명의로 「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메일을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다음은 발송된 이메일 전문이다.

7) 「2021년 중앙도서관 구독 중단 예정 전자자료 및 학술지 보고」(2020. 12. 22.)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전자자료 구독 문제와 관련하여 학내 연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지난해 말 학내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이용이 저조한 전자자료 상당수를 구독 중단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는 예산 압박에 따른 조치였으며 다행히 구독 중단 대상 전자자료 중에서 각 학과(학부)에서 구독 유지 요청이 들어온 자료들은 빠짐없이 계속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악화되어 온 뜨거운 이슈입니다. 자료구입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각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전자자료 구독 유지를 위해 해마다 3~9% 정도로 인상되는 구독료와 환차손 등으로 누적 적자는 작년 2020년까지 약 21.2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누적적자 외에도 2021년 엘스비어(Elsevier)의 ScienceDirect 전자자료 패키지 구독만으로도 약 27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중앙도서관 전체 전자자료 예산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cienceDirect에 대해 종량제 전환(학내 연구자 1명이 1년에 이용 가능한 논문 수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부산대가 2년 전부터 시행)도 고민했지만, 다행히 대학본부가 5.1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동시에 엘스비어 측도 구독 모델을 일정하게 변경해줌으로써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도서관의 지속적인 예산 추가 요구에 대한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법인 예산에서 자료구입비 6.4억 원을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20억이 넘는 누적적자를 일괄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이 기존 전자자료를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못해 부득이 일부 이용이 저조한 전자자료를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규 자료들도 심의절차를 거쳐 일부 구독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자료 문제는 우리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내 모든 대학과 연구소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지난 십여년간 KERIS, KISTI 등의 기관에서 컨소시엄 협상단을 구성하여 엘스비어, 스프링거, 와일리 등 해외의 거대 출판사를 대상으로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거점국립대학교 도서관장이 모여 '전자저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와 협력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거대 출판사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구독료 인상에 맞서는 동시에 지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오픈 사이언스 운동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Open Access 운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A 출판 전환계약을 조건으로 와일리, 엘스비어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와일리는 독일, 스웨덴 등에서 2019년 OA 출판 전환 계약의 최종 모델인 PAR 모델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엘스비어의 경우 스웨덴, 노르웨이와 OA 출판 전환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독일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어 ScienceDirect 구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국가에서 개별 협상이 진행됨과 동시에 2018년 9월 유럽의 12개국 2021년까지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연구비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출판 시 무조건 OA로 출판한다는 'OA 2020', 'PlanS'와 같은 이니셔티브 아래 OA 확산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University of California의 10개 캠퍼스가 단결하여 출판비(APC)와 논문이용료를 통합하여 구독비용을 낮출 것을 엘스비어에 요구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논문을 OA로 이용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협상은 결렬되었고 2020년 7월 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는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잦고, 협상 결렬 후 독일의 연구자들은 엘스비어 관련 저널의 편집장과 편집, 자문위원회 등을 사임했고, UC 교수진 사이에서는 이메일을 통하여 Cell Press를 비롯한 엘스비어 관련 저널에 논문 투고를 거부하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별 도서관에서는 연구자가 필요한 논문을 다른 Open Access 사이트를 찾거나 상호대차를 이용하고, 심지어 필요한 논문을 개별 구매하여 연구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엘스비어에 연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온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주립대, 플로리다 주립대학 도서관 등 개별 대학들도 2020년 구독계약을 취소하고 개별 저널에 대해 선별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로리다 주립대학은 대학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도서관과 엘스비어의 빅딜 계약 취소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소속 교수들은 도서관 예산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내와 해외의 고등교육기관과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자료 구독에 대한 논란은 뚜렷한 성과 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국내대학 도서관의 컨소시엄인 KCUE 협상단이 와일리와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고, 서울대는 엘스비어와의 3년 계약이 끝나는 2023년에는 다시 어려운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해외 주요 대학의 도서관 책임자들은 결국 거대 학술출판사들의 전자자료에 관한 횡포에 맞서기 위해 보이코트 운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보이코트의 성공 여부는 학내 연구자들의 이해와 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 서울대도 국내 다른 대학들과 연대하여 보이코트에 앞장서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올해처럼 해마다 구독 중단 혹은 신규구독을 결정하기 위해 각 학과의 우선순위를 요청하여 구독 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구독 순위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분야별로 꼭 필요한 저널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전자자료 문제는 예산 증액과 도서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제는 대학도서관만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알려드릴 예정이니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6.

중앙도서관장 김명환 올림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 발송 이후 학내외 연구자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다음은 연구자들의 회신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중앙도서관 전자자료 구독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에 대한 학내외 연구자 의견

타대학 도서관장

오늘 아침 서울대 지인으로부터 관장님이 교수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전달받아 읽어 보았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요즘 메시지에 언급되어 있는 미국의 University of California와 엘스비어 간 협상문제에 대한 내용을 추적하는 원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도서관계가 협력하여 엘스비어 등 거대 출판사들과 멋진 협상을 기대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 원고가 완성되면, 관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지식공유연대 회원

김명환 관장님의 서한은 우리나라 OA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봐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내 최대의 연구대학의 도서관장이 그 구성원들에게 학술지 문제의 해결점으로 OA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에서 그동안 전혀 없던 액션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버드 대학 등 해외 대학내 OA는 단과대학의 학장, 도서관장들이 구성원들에게 김명환 관장님과 같은 서한을 보내면서 대학내 OA policy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공연[지식공유연대]이 김명환 관장님의 편지를 적극 지지하고 다른 대학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지의 글을 발표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구자나 대학에게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략)... 독일이나 유럽연합은 국가차원에서 따로 펀딩을 만들고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이나 Wellcome Trust는 연구비에서 OA의 APC를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하고 제공하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하는 기관들로서는 대형출판사에 끌려가는 형국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국가나 기관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

중앙도서관이 수행하는 전자자료 제공이 값싼 용역이 아니며 늘어나는 비용 문제가 예산 확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략)... 국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있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고무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자의 위치에서 보이는 풍경에서는 2012년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나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구성원이 늘어나 하루빨리 필요한 동력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학원생

전자자료 구독 관련하여 보내주신 글을 잘 받았습니다. 그간 전자저널 구독 범위가 축소될 때마다 본부에서 정작 써야할 곳에는 안 쓰고 중요한 예산을 줄인다고 지레 오해하고 답답했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일개 이용자로서 제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전자자료와 관련하여,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관장님을 비롯한 중앙도서관의 많은 스텝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준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깊은 이해와 참여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 전합니다.

3. 향후 과제

앞으로 중앙도서관은 지난 10년 간 해묵은 과제였던 전자자료 누적 적자 해결, 국고출연금 증액 등의 가시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또는 학과) 간 학술정보 이용에 격차 없이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인프라의 양적, 질적 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 대학의 안정적인 학술정보 지원 기반을 위한 규정 및 정책 마련

우리 대학 구성원의 교육 및 학술·연구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학술정보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자의 연구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술정보 및 전자자료의 구독 유지 및 신규 구독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전년 대비 장서확충 예산은 매년 3.5% 인상하되 실제 전자자료 구독 비용 상승, 물가 인상을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대학의 연구비 규모에 비례하는 간접비 예산 지원 명문화

대학의 간접비는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 비용으로 개별 연구 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 과제의 연구비가 입금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징수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2019년부터 본부 예산 지원을 통해 도서관사업비 약 18억(장서확충 1,070백만 원, 학술정보화 742백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는 대학의 연구비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동결 수준이며, 2020년 간접비 관리 지침 개정으로 현재 명문화된 지침조차 없어⁸⁾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 R&D 예산은 2024년까지 연평균 매년 7%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 연구자의 연구비 수주 또한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연구비 증가는 연구자의 연구 활동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매년 동결 수준의 예산으로는 핵심 학술 자료의 구독 유지가 매우 어려우며 신규 전자저널 구독 불가로 관련 분야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의 연구 자료 이용 불편이 연구 성과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본교의 간접비 규모가 연구비 규모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 이용에 불편 없이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연구비 규모의 증가만큼 도서관사업비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서관은 유관 기관(부서)과의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8)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9조(간접비 배분 기준)에 ‘도서확충사업비(10%)’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2020년 이 지침을 개정하면서 ‘도서확충사업비’ 항목은 삭제된 상태다. (사유: 정부연구비규정(2009년도 시행) 상 도서관사업비는 직접연구비에 미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배분 기준은 상위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정부 기준에 맞게 간접비 배분 기준을 개선)

다. 전자자료 구독 평가 개선 노력

2021년 1월 홈페이지에 구독 중단 전자자료 28종을 공지했을 당시 일부 구독 중단 대상 전자자료 중 학과별 핵심 구독 저널이 포함되어 해당 전공 이용자들로부터 평가 방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다. 2020년 수행한 전자자료 구독 평가 방식의 경우 다수의 단과 대학 혹은 학과에서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자료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특정 소수 학과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전자자료의 경우 전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컸고, 실제 한 학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널이 구독 중단 대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자자료 평가 방식이 가진 한계를 매년 검토하여 학과별 핵심 저널이 구독 중단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전자자료가 구독 중단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전자자료 구독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현시점에서 전자자료 구독 평가는 구독 대상 선정에 있어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업무로 매년 기존의 평가 기준이 가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전자자료 빅딜(패키지) 계약의 개선 검토

우리 도서관의 전자자료 계약 모델은 빅딜(패키지) 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자료 구독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가 최대 이슈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빅딜 계약의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독료 과다 지불, OA논문 이중 지불 등이 빅딜 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의 빅딜 계약 현황, 장단점,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토대로 이용자의 자료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기존 패키지 구독 모델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여 예산 낭비 없는 전자자료 구독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 2024년 ScienceDirect 구독 및 협상 준비

ScienceDirect는 우리 도서관의 전자자료 구독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가장 고가의 품목으로 2020년에 예산 부족으로 종량제 구독을 검토한 적이 있다. 다행히 산학협력단의 예산 지원 덕분에 이전처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ReBase 모델로 다년(2021년~2023년) 계약을 완료하였지만 다년 계약이 끝나는 2024년 ScienceDirect 구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전자자료 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한 필수 저널 파악과 함께 가장 적합한 구독 모델을 찾아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컨소시엄 관련 기관 및 출판사와의 면밀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2021년 3월 UC와 Elsevier 간의 OA 계약 체결 사례처럼 우리 대학이 OA 전환 계약을 결정하게 된다면 출판 대상 저널, 지출 방식, APC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보이코트까지 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